

# 정보화시대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을 위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 전략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ortation of the e-clearance system of Korea Customs Service to overseas aiming to lead the global trend of Customs informatization

서재용\* 조정훈\*\*

## 목 차

- |                           |                                  |
|---------------------------|----------------------------------|
| I. 정보화시대의 대내외 관세행정 여건의 변화 | III.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해외수출 전략 및 향후 운영방향 |
| II. 관세청의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 현황   | IV. 맺는말                          |

Key Words : informatization, customs, KCS, exportation, clearance, system

## Abstract

Ever since the computer came into being in early 20th century, rapid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led to the opening of the ubiquitous age where daily works can be done anywhere, anytime, and with any devices.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drawn attention from Customs around the world as a key means to fulfill multi-faced responsibilities of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trade, simplifying clearance procedures, expediting logistics flow, and ensuring security in the global supply chain. Korea Customs Service, which began the informatization effort by establishing the electronic export declaration system in 1992, completed the 100% electronic clearance system in 2000, with a number of countries now conducting benchmarking studies on the successful use of IT by KCS.

This paper is to address the changes brought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 the information age, the progress and achievement of the Customs informatization as a proactive strategy to deal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 exportation to overseas administration of the e-clearance system of KCS which strives to become the global leader of Customs informatization. The exportation, in particular, will not only lead to increased foreign currency earnings and shared know how, but also create an opportunity to reflect Korea's system in the standard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round the world.

\* 관세청 사무관, js002@customs.go.kr, 042)481-7976

\*\* 관세청 검사전문관, comfra@customs.go.kr, 042)481-7927

# I. 정보화시대의 대내외 관세행정 여건의 변화

## 1. 정보화 시대의 도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 기반의 협력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각국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업무환경과 일상 생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사회의 각 분야가 전산화·자동화되고 각종 전자매체가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탈산업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이제는 전산시스템에 기반하여 생산된 정보(Information)가 제3의 자산가치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렇듯 정보화(Informatization)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략적으로 정보화 구축 노력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쇄도하는 정보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보화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국제사회에서 IT코리아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세행정에 도입하여 정부 부문의 정보화 추진을 선도함으로써 부족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견인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이제 우수한 관

세행정정보시스템\*과 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관세행정이 글로벌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삼고자 한다.

## 2. 대내외 관세행정 여건의 변화

### 1)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FTA 체결 가속화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종래의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와 더불어 자유 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적인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더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에 개최된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어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을 체결 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 2) 개정교토협약의 발효에 따른 세관절차 간소화 추진

2006년 2월3일 세관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 협의로는 'EDI 또는 인터넷에 의한 세계최초 100% 전자 수출입통관, 수출입화물 추적관리뿐 아니라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에 통합하여 처리가 가능한 전자통관시스템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이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51개 정보화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

로 하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 개정교토협약)가 발효되었다. 이 개정협약의 발효로 세계 각 국은 국가간 무역 원활화와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본적인 인프라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축되는 전자통관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4번째로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당시 개정교토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 법령에 이미 반영한 바 있으며, '통관절차 표준화', '통관절차 신속화', '통관절차 간소화' 및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1>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2006.2.3 발효)

분 야	주요 내용
1. 통관절차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은 최소한의 신고사항만을 요구</li> <li>· 외국 세관의 봉인 인정</li> <li>·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구두신고 허용</li> </ul>
2. 통관절차의 신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제공에 의한 물품반출 허용</li> <li>· 업무시간의 통관 허용</li> <li>· 일반적인 우편물에 대한 세관 통제 금지</li> <li>· 구호용 탁송품에 대한 우선적 통관</li> </ul>
3. 통관절차의 국제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된 신고양식의 사용</li> <li>·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사용하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의 도입</li> <li>· 여행자 통관시 복수통관제도 도입</li> <li>· 원산지 결정시 실질변형 기준 채택</li> <li>· 통관 관련 분쟁발생시 독립기관에 대한 불복청구권 허용</li> </ul>
4. 관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물품, 선물용품, 상업용 견본 등</li> <li>· 일정수량 이하의 담배, 술, 향수 등</li> <li>· 일시수입물품</li> <li>· 선박, 항공기 등 상업용 운송수단</li> <li>· 선용품 및 기용품</li> <li>· 구호용 탁송품</li> <li>· 일정한 한도내의 비거주자 개인용 휴대품</li> <li>· 국외가공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li> <li>· 허가를 받은 국내가공을 위한 수입</li> </ul>
5. 최혜국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원산지국·행선지국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관절차의 적용</li> </ul>
6. 정보기술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물품신고 허용</li> <li>· 전자이체에 의한 관세 납부</li> </ul>

3) 국제 무역공급망 안전강화 추세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테러사태는 전세계 무역환경에 적지 않

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그 동안 세계무역기구(WCO)를 중심으로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만을 강조하던 종전의 국제 무역환경을 무역공급망 안전 강화라

는 상반되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무역환경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24-Hour Rule』과 함께 주요 수출국에 자국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자국에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을 선적 전에 검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3년 1월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 CSI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 등에서도 외국과의 CSI협정 체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역공급망의 안전강화와 무역원활화라는 상반되는 목적의 동시 달성은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범물품은 정확하게 선별하여 차단하고 일반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의 해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관세행정정보화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4) 세관신고항목(Customs Data Model; CDM)의 표준화 추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관 신고항목의 표준화 작업은 국제무역과 관련한 화물의 도착, 출발, 운송, 통관 등의 제반과정에서 무역업자가 세관에 전송하는 신고항목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정확성과 신속성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야심적인 사업구상이다. 이는 개정 교토협약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화와 IT기술의 도입, 업무단계별로 필요한 최소한 데이터의 전송 및 통관단일창구 환경 구축 등을 주요 기본 원칙(Basic Principle)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출입, 입출항 적하목록 관련 264개 항목으로 구성된 WCO Customs Data Model V2.0 구축이 완료된 바 있으며, 2008년까지 수출입요건확인서 기재항목, 환적 관련

항목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CDM 추진을 통해 중복적, 반복적인 제출자료의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수출입 요건확인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한번만 제출하도록 하는 Single Window 기반 구축, 국가간 데이터 교환을 통한 화물 도착전 정보의 사전입수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정확성 향상과 더불어 과세가격 저가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의 효과적인 차단을 통한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단절없는 물류 실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CDM의 추진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관세행정의 정보화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 II. 관세청의 관세행정정보화 추진 현황

### 1. 관세행정정보화 추진 배경

1960년 이후 세관인력의 감소에도 교역량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국가마다 통관업무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당시 통관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에서는 “무역절차 간소화와 수출입 물품의 적법성 통제 강화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통관에 EDI 기술 도입만이 그 해결책이다” 라는 말로 EDI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한 통관, 제도 및 절차의 간소화 등 관세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전산화가 추진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관세행정 전산화

는 제도 및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 및 문서의 표준화를 꾀하는 한편, 업무처리의 기준을 객관화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절차 제공으로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 부대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관세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 2. 관세행정정보화 추진 경과

국가행정전산망 6대 사업의 하나로 통관업무가 선정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1985년부터 약 5년간에 걸쳐 항공화물 통관관리시스템(CCS)을 개발하여 1990년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1992년 6월 EDI형 통관자동화 구축 6개년 계획에 따라 1994년 1월 수출통관시스템 개발에 착수 후 11월에 개통된 수출통관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무역업체 및 관세사 등 관련업계에 EDI 방식을 통한 업무처리 기반을 조성하였고, 1996년 5월에 수입통관시스템을 전국에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무역통계시스템, 수출입화물시스템, 관세환급시스템, 여행자정보시스템 등 통관자동화시스템이 연이어 구축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반적인 규제완화와 그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통관을 추구해왔던 전자관세행정(Paperless)의 허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 외환거래, 부정 수출입통관, 불성실 신고 행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Risk Management; RM)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통관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엄청난 양의 통관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분석 등 위험관리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경영체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관세실무의 노하우와 기법을 접목하여 국제청 세적자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자료 등의 외부자료를 통관자료 등 내부자료와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정제함으로써 단순히 축적된 자료의 집합체가 아닌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편리하게 추출하여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정보시스템(Customs Data Warehouse; CDW)이 완성되었다.

실제로 CDW를 토대로 한 과거자료의 분석으로 일수의 타이밍을 적기에 포착할 수 있는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금과, 담배, 녹용 등 전년동기에 비해 8배에 이르는 밀수 단속실적을 거둔 바 있다.

그리고, 조직 내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조직내에 축적된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CM)도 도입하였고, MFCS\*를 통하여 수출입화물의 진행정보를 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화물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보경영체제 구축으로 종전에 단순한 세관 통관업무의 전산화에서 정보화로의 단계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터넷 기술의 발전 및 보편화에 부응하고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 및 물류비용의 대폭 절감효과를 얻기 위해 기존의 EDI 방식과 병행하여 보다 편리한 저비용 구조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각종 수입요건확인기관 및 협회의 요건확인업무를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관·검사·검역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수출입통관 Single Window 체제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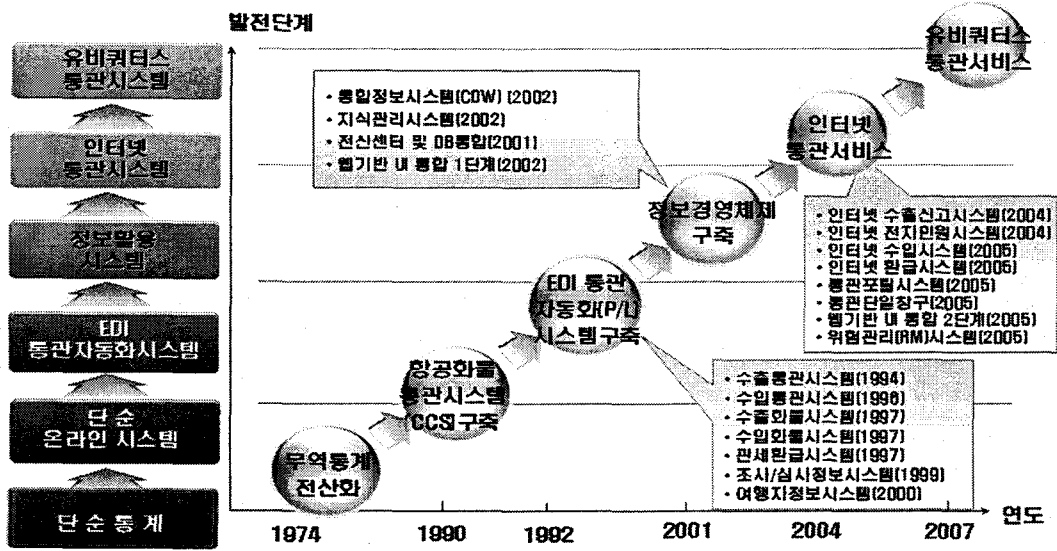
현재 관세청에서는 화물관리 체계에 RFID\*\* 등 Ubiquitous 기술을 접목하고, 유무선 통합 인터넷통관포탈 구축을 통하여 언제 어

\* MFCS(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 화물의 총량관리를 위해 선사/항공사에서 제출하는 B/L을 모선/항공기 단위로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적하목록취합시스템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의 약자로, IC칩에 내장된 태그(Tag)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읽을 수 있는 장치

디서나 모든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지능형 관세행정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림 1> 관세행정 정보화 발전단계

### 3. 관세행정정보화의 성과

그 동안의 관세행정정보화 추진은 관세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세관직원 은 모든 관련자료를 전산으로 동시에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해졌고, 민원인은 세관방문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화물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의 거래고객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 1일 이상 소요되던 수출통관시간이 1.5분 이내로 단축되었고, 수입통관의 경우 2일 이상 소요되던 것이 1.5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신속 통관체제를 실현하였으며, 서류없는 통관체계 확립, 수출입 관련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로 수출입업체 물류비용이 연간 2조 5천 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Ⅲ.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 전략 및 향후 운영방향

#### 1.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해외수출 추진 배경

그 동안의 관세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관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각국과의 정기·비정기 관세청장 회의와 외국 직원 초청 연수 및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소개해 왔다. 2005. 4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장이 직접 한국 관세행정 정보화 혁신을 소개한 지 6개월 후인 2005. 10월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관세청과 한국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참여업체간에 카자흐스탄 관세행정 정보화 사업 설계부문(BPR/ISP)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5. 12월, 한국 관세청에서는 중앙아시아 7개국 최고위 관세당국자를 초청하여 ‘전자정부와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국 관세행정 에 대한 외국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전설한 바와 같이 최근의 무역환경은 무역 공급망의 안전강화와 무역원활화라는 상반되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행정분야에서 우범물품은 정확하게 선별하여 차단하고 일반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관세행정정보화가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출발이 다소 늦은 1992년부터 관세행정 정보화를 본격 추진하여 세계 최초로 100% 전자통관체제를 빠른 기간내에 구축·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이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시각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그 동안 30여개 국가와의 정기·부정기적인 세관협력회의와 세계관세기구(WCO) 및 APE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단순우호협력관계 증진에서 성과중심의 세일즈 외교로 본격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관세청의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해외수출 유치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 2.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해외수출 추진전략

관세청에서는 OECD국가의 일원으로서 개도국의 관세행정발전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나아가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업체(삼성SDS, LG CNS, KNET 등)를 적극 참여시켜 직접적인 외화 수익까지 창출한다는 계획 하에, 금년 1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을 관세청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TRA, 삼성 SDS, LG CNS, KT, KNET 등 6개 단체와 함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이는 관세청의 폭넓은 해외네트워크 및 풍부한 국제연수프로그램 운영경험, 관세관 등 해외주재관과 KOTRA의 해외 수요 조사 기능과 더불어 관세행정분야 IT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하나로 결합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을 위한 관세청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출대상국 관세청장 등 관세행정 최고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관세청에서 주요 수출대상국가로 파악하고 있는 대상은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로서 관세행정정보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세수의 많은 부분을 내국세보다 관세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정보화 추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해당 기관의 책임자인 관세청장의 의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관세청에서는 기존의 우호협력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관세청장회의와 세관협력회의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해당국 관세청 고위관료 및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설명회(일명 ‘IT세션’)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초,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지원단이 카자흐스탄

관세청을 직접 방문하여 카자흐스탄 관세행정정보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2006년 3월28일에는 중남미의 도미니카공화국과 제1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도미니카 세관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설명회도 함께 진행하여 현지의 열띤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도미니카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는 우리 관세청 뿐 아니라 민관합동지원단 소속의 민간업체가 직접 분야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신뢰성과 전문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총 사업규모 2,900만불의 도미니카 관세행정정보화 사업은 장차 중남미에서 출입국관리시스템, 지자체 정보화 사업 등 우리 IT 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최초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몽골,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및 동남아, 중남미 주요 국가 등과도 세관협력회의 및 정보화설명회를 개최하여 세일즈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주요 수출대상국가 관세청의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관세행정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로서 개도국에 대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지원해야 하는 도의적 의무이행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외국 세관직원을 직접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전자통관 관세행정체제를 눈과 귀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

실제로 금년 3월말부터 2주간 실시된 카자흐스탄 세관직원에 대한 초청 연수는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국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촉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IT분야에 대한 많은 견문을 통해 타 분야의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중순경에는 몽골, 그리고 하반기에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및 중남미 등 10여개 국가의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우리 관세행정정보화를 통한 혁신과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수출대상가능국가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관세기구(WCO),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직접 우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수출대상 국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2006년 4월6일부터 8일까지 인도 방갈로르에서 열린 2006 세계관세기구(WCO) IT 총회 및 전시회에는 WCO 회원국 22개국과 유관기관 직원 250여명이 참석하여 관세행정 발전방향으로서의 IT역할에 대하여 많은 토의와 각국의 운영현황이 소개되었다. 우리 관세청에는 관세행정분야 민간업체와 함께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홍보관을 직접 설치하여 공동운영함으로써 세계 각 국의 세관직원과 유관기관 및 IT업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넷째,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관계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세관협력회의 등 관세청의 해외 네트워크망과 IT업체의 관세행정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침으로써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세관협력회의와 연계한 정보화설명회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관세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이 대부분 개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 추진에 소요되는 개발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과의 양해각서



(MOU) 체결 등을 추진하고, 또한 관세행정정보화에 대한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도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3.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해외수출의 효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은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에서의 IT코리아 홍보라는 무형의 이익 외에 우리 IT업체의 해외진출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는 타 IT분야의 해외진출도 함께 유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앞선 관세행정정보화 기술을 해외에 전수함으로써 각 국가간 관세행정수준 및 정보기술 격차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은 필연적으로 그 내부에 녹아있는 우리 관세행정제도까지도 수출하게 됨으로써 국제관세행정에 있어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추진중인 전자문서 표준화 작업에도 우리의 전자문서가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V. 맺는말

세계는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이른바 소용돌이의 장(Turbulent Field)에 직면하고 있다. 급변하는 IT환경과 국제 관세 및 물류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2류 국가로 도태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나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새로운 질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세행정의 선진화이며, 나아가 관세행정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역안전과 신속통관의 동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세계 각국은 관세행정정보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관세행정절차는 어느 분야보다도 세계적인 표준화가 많이 진척되어 있어 외국의 정보시스템 도입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해외수출의 전망이 가장 밝은 공공행정 부문이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출유치활동을 펼침으로써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 관세행정이 명실공히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글로벌 관세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참 고 문 헌

1. 관세청, 「관세행정정보화 백서」, 2004. 1.
2. 박상태, 「21C 정보화시대와한국관세행정의발전방향」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협회, 2002. 2.
3. 박진현, 「최근 미국관세행정의 정책변화 연구」, 2004.10
4. 배정민, 「효율적인EDI통관자동화구축을위한해외사례SURVEY및한국의추진방안에대한연구」, 1993
5. 손병조, 「싱글윈도우로 가는길」, 2004.4
6. 정인교외, 「동북아협력:관세,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1999.12
7. WCO, 「WCO Customs Data Model Handbook」, 2003.10